

2017. 1. 20.

참석자 명단: 임야곱 김세진 이정훈 조은혜 조미림 임별이 김신영 황여은

## 유혹을 이기는 필살기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었다. 김치를 먹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 안에 들어 있는 마늘 냄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다. 이민 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싫어할까? DNA가 달라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건 어릴 때부터 자꾸 먹어서 그렇다. 자꾸 접하다 보니 좋아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서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자꾸 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대안이 된다.

오늘 우리가 물질 추구하고 쾌락 추구로 대변되는 세상에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그것을 용인하는 가치관을 자꾸 접했기 때문이다.**

”

나는 동성 결혼 문제가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합법화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보기 때문이다.

지금 상영되는 영화들을 보라.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어느새 동성 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남자들이 귀를 뚫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요즘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 남자가 귀 뚫는 것이

뭐 어떤가. 이것이 문화다. 자꾸 접하면 자연스러워 보이게 된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도 그렇다. 1970년대 같았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만한 일이었겠지만, 요즘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공기머리를 했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려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자꾸 접하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옛세 내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반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빼앗으려는 세상 문화는 일주일 내내 폭풍처럼 밀려들지만,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이다. 이러니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세속화 되어가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이기에, 지금 호세아가 제시하는 대안을 기억해야 한다.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찬수 / 규장

† 말씀 - 요한복음 15장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